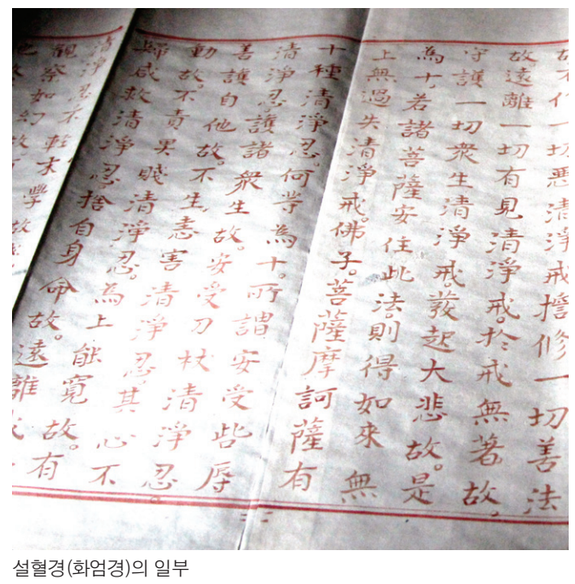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②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80권 60만자 설혈 화엄경 보며 '광도중생지대원' 합장 발원

혀끝을 찔러 피를 주사와 섞어 〈화엄경〉을 사경하는 그림



설혈경(화엄경)의 일부

설혈경은 가장 희귀하고 높은 문화재 · 신앙적 가치를 지녀 明代 조혜 스님 혀 찔러 사경 400톤의 용장목판경 중국 최고

종이와 비단에 기록된 경문(紙帛經書)

운거사에는 종이나 비단에 쓴 경문 2만 2000권이 소장돼 있고, 명대의 남장, 북장, 단행본으로 조판 인쇄한 불경 필사경 서장 어경 두루마리가 소장돼 있다. 특히 설혈경(舌血經)은 가장 희귀하며, 매우 높은 문화재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설혈경은 혀끝의 피를 묻혀 쓴 80권, 60만자의 〈대방광불화엄경〉으로, 작자는 명대의 고승 조혜이다. 운거사 안내문에는 "사료기록에 따르면 고대의 승려는 불조석가모니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혀를 찔러 피를 내어 먹으로 삼으며 손을 태워 등불로 삼았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조혜 스님은 설혈경을 쓴 대표적인 스님으로 숭정 13년(1640)부터 자기의 혀를 찔러 나온 피와 주사를 섞어 먹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경건하게 〈대방광불화엄경〉을 썼다. 전시관에는 조혜 스님이 피로 쓴 은은한 홍색의 글자에서 뿜어 나오고 있는, 설혈경의 경건함과 원력의 힘이 많은 불자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있었다. 설혈경 친견을 통해 일행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30여 년 동안 출가생활을 한 필자도 옛 조사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치열하게 수행했던 모습을 감히 흉내 내지는 못할 지라도 선조들이 땀 흘려 이룩한 불법을 훼손하지는 않는 수행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발원하며 모형으로 만들어진 조혜 스님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귀의 발원해 본다. "광도중생지대원(廣度衆生之大願)"

전시장에는 북장이 전시돼 있고, 변상도 부분이 펼쳐져 있었다. 변상도(變相圖)는 경전 맨 앞에 붙여져 있어 권수도(卷首圖)라고도 불리며, 경전의 내용을 이미지로 압축한 그림으로, 사경 변상도와 판화변상도가 있다. 그 중에서도 판화 변상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판화 변상도는 옛 판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북장 변상도는 중국을 대표하는 변상도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변상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시장 유리관으로 인해 사진 촬영이 잘 되지 않았으나 마침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된 북장본으로 아름다운 변상도를 독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중국 대장경의 역사

운거사의 삼절중에 하나인 종이와 비단에 기록된 지경(紙經)이 전시된 설혈진경관(舌血眞經館)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중국 대장경의 역사가 궁금해 진다. 2006년 중국 인쇄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 만난 인연이 있는 뤄슈바오(羅樹寶)선생(인쇄박물관 부관장으로 퇴임한 서지학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조성된 대장경은 〈개보장(開寶藏)〉으로 정부 조직이 성도에서 각인(刻印)한 첫 번째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은 송대 개보(開寶) 4년(971)에 만들기 시작해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했다. 〈개보장〉은 12년에 걸쳐 5000여 권, 13만 개의 각판으로 만들어진 권축장(卷軸裝)이다. 권축장은 권장, 권자본, 수권이라고도 하며, 종이 서적 최초의 장정 형식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이뤄진 것이다.

〈개보장〉은 각판(刻板) 완성 후 수도인 개봉으로 옮겨와,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인경원에서 인쇄했다. 인쇄된 경전은 남북의 큰 사원들에 나누어 보관했으나, 현존하는 개보장은 몇 권에 불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장경 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수대장(萬壽大藏)〉은 일명 〈숭령장(崇寧藏)〉으로 북송시대 원풍(元豊) 3년(1080)부터 숭령2년(1103)까지 북주의 백마산 동선사원에서 각인했다. 모두 6434권이고, 500여 개의 함으로 된 경절장(經折裝)이다. 경절장은 대부분 불경을 장정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절첩장이라고도 부른다. 지그재그로 반복해서 접혀 있는 병풍형태이다.

〈만수대장경〉은 충진, 지화, 계장 스님 등이 탁발해 모은 돈으로 각인한 것으로, 민간 자본으로 새긴 최초의 대장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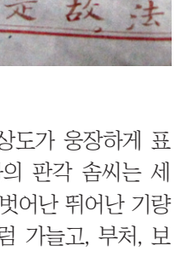
〈비로장(毘盧藏)〉은 송대 정화(政和) 2년(1112)부터 소흥(紹興) 21년(1151)까지 북주의 개원선사에서 각인했다. 6000여 권의 경절장으로, 역시 민간자본으로 모금하여 새긴 것이다. 〈원각장(圓覺藏)〉과 〈자복장(資福藏)〉은 남송시대 절강의 호주에서 두 번에 걸쳐 증보해 각인한 대장경이다. 첫 번째는 소흥 2년(1132)에 지역의 부호인 왕씨 형제가 출자하여 호주의 원각선원에서 각인한 대장경으로, 550여 개의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원각장이라 부른다. 가희 3년(1239)에 호주의 자복사에서, 첫 번째 각인했던 대장경을 약 5740권의 경절장으로 천자문 순서대로 각인한 것으로 민간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이 대장경을 자복장이라 부른다.

〈적사장(磧砂藏)〉은 남송 소정(紹定) 4년(1231)에 소주 적사의 연성원에서 설립한 경방에서 자본을 모금해 대장경을 각인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원대 지치 2년(1322)까지 계속되었고, 완성되는 데에 91년이 걸렸다. 1532종의 불경이 수록되어 있고, 천자문 순서대로 배열된 경절장이며, 591개의 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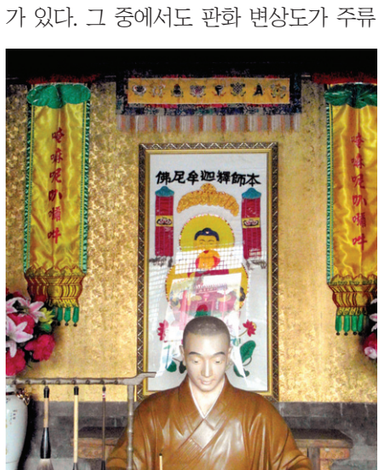
〈거란장(契丹藏)〉, 일명 〈요장(遼藏)〉으로 요나라 정부가 출자해 연경에서 각인한 것이며, 각인 착수 시기는 요나라 통화 8년(990)보다 이르며, 중희 23년(1054)에 완성했다. 5천여권, 5백여 질로 구성된 권축장이다. 이 경권은 각 사원에 보내어 보관한 것 이외에 고려 왕실에도 보내져 우리나라 대장경 조성에 영향을 주었다. 〈금장(金藏)〉, 일명 〈조성장(趙城藏)〉으로 금나라 황통 9년(1149)부터 대정 13년(1173)까지 대장경판회가 주도해, 민간자본으로 강주의 천영사에서 각인했다. 7000여 권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노주의 여인인 최법진이 비구니가 되어 팔을 잘라 고행하며 탁발하여 진남 일대의 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에 빈부를 막론하고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돈 없는 자는 당나귀, 옷감, 목재 등의 물건으로 기부했고, 한인 외에 여진인 몽골인들도 기부했다고 전한다. 1934년 산서성 조성현 광승사에 숨겨져 있던 한 부를 발견하였으며, 1943년에 일본군이 이 경권을 강탈하려 하자 팔로군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해방 후 북경도서관에 4330권을 보관 · 정리하였고, 산서성 박물관에 132권이 보관되어 있다. 현재 이 경전은 모두 4462권으로 2000여 권은 소실됐다. 〈남장(南藏)〉과 〈북장(北藏)〉은 명나라 조정에서 출자하여 각인한 대장경으로, 남장은 홍무 5년(1372)에 조정의 명을 받아 남경의 대보은사에서 각인한 대장경이다. 636함 6330권의 경절장이며, 천자문 순서로 편집되어있다. 후에 이 대장경을 남장이라고 불렀다. 영락 연간(1403~1424)에 명나라 성조인 주체의 명령에 따라 대장경을 각인하여, 정통 5년(1440)에 완성하였는데, 637함 6361권의 경절장이다. 만력 연간에 41함 410권을 다시 각인했는데, 이후에 이를 북장이라 불렀다. 중국의 대장경은 국가에서도 만들어졌지만, 민간에서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앙심으로 이루어진 민간 판본이 유독 많음을 알수 있으며, 금장을 조성할 때 팔을 잘라 고행하면서 탁발하여 경전을 만들었던 최법진 비구니 스님의 절절한 이야기나 설혈진경관의 주인인 명나라 조혜 스님이 혀를 찔려 경전을 완성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용장목판경(龍藏木板經)

운거사의 삼절중에 마지막인 〈용장(龍藏)〉목판경은 청 옹정 11년(1733)에서 시작하여 건륭3년(1738)까지 판각되었으며, 모두 718상자에 1662부, 7160권, 7만9000개의 목판으로, 전체 경판의 총중량은 400톤에 이르며, 중국 목판경의 최고이다. 목판경의 재질은 모두 우수한 배나무를 선택하여 조각하여 만들었으며, 조각솜씨가 정교하고 글자체가 바르고 수려하여, 불상과 판면이 정교하면서 아름다워 생동하면서 멋이 있다. 이 경판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1700년간의 저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불학, 철학, 역사, 과학, 예술의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용장 목판 변상도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는 "해희도(海繪圖)"가 있으며, 목판경관에 전시되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제자를 위해 설법하는 영산회상도가 웅장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화판화의 판각 솜씨는 세밀하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뛰어난 기량으로 선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부처, 보살, 나한, 비천 등 모두 76명의 형상이 각각 살아있는 듯 하여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과 보살들과 나한들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에 나투실 것 같은 아름다운 변상도이다. 용장목판관에서는 용장 목판을 직접 찍어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주사 먹으로 찍어낸 해회도 변상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용장 변상도와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옹정 연간의 변상도를 비교하여 보니, 고판화박물관 소장품은 자금성 무영전에 소장되어 있는 내부각판(內府刻版)으로 인출된 것으로 운거사 변상도보다 앞서 제작된 것으로 세밀한 필선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다. 용장 목판경관을 빠져나와 보니 일행들은 요나라 때 건립된 아름다운 전탑인 나한탑에서 자료 촬영에 한참이다. 운거사에는 당나라와 요나라 시대에 건립된 탑들이 남아 있으며, 미술사적인 가치가 높은 탑이나, 해가 지는 시간으로 인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문을 나서게 된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 · 박도화(고판화박물관)



조혜 스님이 사경하는 모습을 본 떠 만든 상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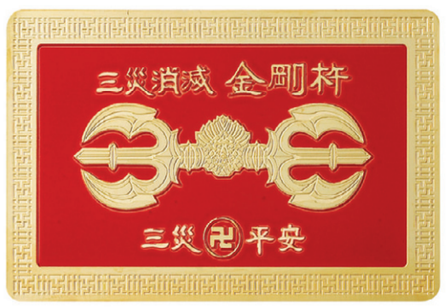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뭘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